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2009.6. pp.109~123

욕망의 간접화와 형이상학적 욕망의 실체

- 김사량의 「천마」와 〈빛 속으로〉를 중심으로 -

The indirection of desire and the substance of metaphysical desire

- Focusing on Gim Sa-Ryang's *Cheon Ma* and *In the Light*

임형모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임연구원)

차 례

- | | |
|-------------------------|------------------------|
| 1. 작품 속 주체의 소외와 이중어 글쓰기 | 3. '삼각형의 욕망'과 주체의 자기반성 |
| 2. 체념적 서자의식과 욕망의 간접화 | 4. 형이상학적 욕망의 실체 |

1. 작품 속 주체의 소외와 이중어 글쓰기

작가 김사량의 문학세계를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소외의 문학'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조선어와 일어 모두를 가지고 글쓰기를 했으며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어로 쓴 작품보다 일어로 쓴 작품²⁾이 더 많다. 또한 모국어로 쓴 작품의 완성도보다 일어를 통해 쓴 작품의 완성도가 더 높다고 보여진다.³⁾

그러나 양자의 글쓰기에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일어로 글을 쓰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작품의 내용은 소외된 조선인의 현실에 초점

1) 임형모, 「김사량의 초기 한글 소설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3호, 국제한인문학회, 2006, p.265.

2) 김사량이 쓴 평론을 제외하고 그가 해방 이전에 조선어를 통해 발표한 소설은 장편 「낙조」(1940)를 시작으로 해서 단편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1941)와 「지기미」(1941) 그리고 장편 「바다의 노래」(1943) 등의 모두 네 편에 불과하다.

3) 김사량의 국내에서의 활동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일본 문단에 진출하면서 소설 「빛 속으로」가 아쿠타가와상(芥川賞) 후보에 오르고(1939), 일본에서 『김사량 전집』이 출간(1974)되기까지 했다.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어로 발표한 「빛 속으로」, 「토성랑」, 「천마」, 「무궁일가」, 「십장 쏜새」 등의 작품에서 “김사량이 묘사하는 것은 저항 운동 공로자나 빨치산 운동의 영웅이 아니라, 늘 이러한 조선 민족의 ‘서민’ 이었고, 정치나 이데올로기나 권력의 강풍에 항상 머리를 숙이고 바람부는 대로 흔들리던 ‘민초’였다.”⁴⁾ 형식만 달랐다 뿐이지 그 내용의 뿌리는 소외된 조선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그의 모국어 창작인 「낙조」에서의 주인공 수일 모자의 외로움, 절망, 죽음 등과 「지기미」에서의 소외된 노동자의 삶 그리고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에서 볼 수 있는 소외된 개인에 대한 무관심 등도 모두 그러하다. 이렇게 보면 김사량의 작업은 모국어든 일어든 크게 차별점을 발견하기 힘들다. 다르지만 같은 것이고 같지만 다르다. 이는 작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중어 글쓰기를 통한 일종의 저항논리로 보여진다. 이러한 저항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내용의 통일성이라는 차원”⁵⁾의 글쓰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식민지민으로서 일어를 모국어로 하고 자라난 주체가 생래적으로 갖게 되는 소외감을 아버지의 언어인 일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인 상징계적 질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글쓰기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김사량의 이중어 글쓰기는 전유이며 그 기원은 조선적 현실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김사량의 작품 「빛 속으로」와 「천마」에서는 일황을 아버지로 하고 자라난 식민지민으로서 타자화된 주체의 비뚤어진 욕망과 반성 그리고 내밀한 주체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본고는 이 과정을 René Girard의 ‘삼각형의 욕망’ 이론을 가지고 분석해 보고자 하며,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식민지민이 갖는 위선적 욕망의 구조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둔다.

4) 川村濤, 「김사량의 삶과 죽음, 그리고 문학」(해설, 김사량, 『빛 속으로』, 소담출판사, 2001, p.331.

5) 임형모, 앞의 글, p.269.

2. 체념적 서자의식과 욕망의 간접화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⁶⁾ 이론은 주체의 내적 현실(inner reality)과 외적 현실(outer reality)의 불일치에서 생겨나는 “욕망의 성질과 그 구조”⁷⁾를 드러내준다.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을 일치시키려는 주체의 욕망은 일반적으로 ‘주체-대상’의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체가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채워지기를 바라는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그러한 결핍은 주체가 욕망의 대상을 전취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전취는 대상과 주체를 잇는 직선만 있으면 간단하게 표현된다.⁸⁾ 하지만 지라르는 이 관계는 본질적이지 아니라고 말한다.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는 이상적인 방랑 기사를 꿈꾸고 있다. 이에 돈키호테는 기사들의 북극인 아마디스를 모방하게 되고, 아마디스의 제자가 된 이후 돈키호테는 자기 개인의 근본적인 특권을 아마디스를 위해 포기하며, 이제 그는 자기 욕망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욕망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디스가 된다. 다시 말해서 주체의 욕망이 간접화(médiation)되어 욕망의 중개자(médiateur du désir)를 거쳐 대상에 이르는 삼각형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는 산초 판사도 다르지 않다. 그의 욕망은 작은 섬 하나를 소유하는 것이면서 자신의 딸이 공작 부인의 칭호를 갖는 것이다. 지라르는 이 욕망도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돈키호테로부터 암시받은 것으로서 산초 판사에게 돈키호테는 중개자라고 말한다. 이처럼 지라르는 우리의 욕망이 삼각형의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그 속에서 주인공들의 왜곡된 욕망의 제 형태와 속물근성을 분석해낸다.⁹⁾

6) René Girard, 김치수·송의경 옮김,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7(2001), pp.39~101 참조. / 이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만 직접 인용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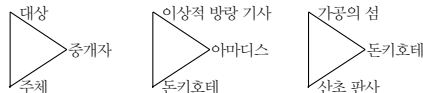
7) 김치수, 「르네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 René Girard, 위의 책, p.33.

8) 즉,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서 산초 판사가 치즈 한 조각을 보았다거나 포도주 한 부대를 보았을 때 느끼는 욕망과도 같은 것이다.

● 대상

● 주체

9) 이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또한, 지라르는 작품에 나타나는 삼각형의 형태를 먼 욕망의 분석에서 중요한 것으로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에 주목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삼각형의 구조는 스탕달의 「적과 흑」에서도 드러나는데, 「돈키호테」에서 보여지는 삼각형과는 근본적인 차이 하나가 존재한다. 「적과 흑」에서 레날 씨는 쥘리앵 소렐을 자신의 두 아들의 가정교사로 만들고 싶은 욕망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자식에 대한 염려 때문도 사랑 때문도 아니다.

발르노(Valenod)는 레날 씨 다음으로 베리에르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리에르의 읍장은 소렐 영감과 함께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그의 눈앞에 떠오르는 그의 경쟁자의 모습을 내내 보고 있다. 그는 소렐 영감에게 매우 유리한 제안들을 하지만, 꾀많은 농부 소렐 영감은 기발한 답변을 생각해낸다. “우리는 다른 데서 더 나은 자리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자 레날 씨는 발르노가 쥘리앵을 고용하려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의 욕망은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구매자가 지불할 마음이 있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은, 그가 자신의 경쟁자에게 있다고 상상하는 욕망에 의해 매겨진다. 그러니까 이 상상적인 욕망의 모방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더구나 모방 중에서도 빈틈없이 꼼꼼한 모방이다. 왜냐하면 복사된 욕망에서 모든 것은, 심지어 그 열성의 정도까지도, 모델로 간주된 욕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¹⁰⁾

이 인용문에 따르면 대상은 쥘리앵 소렐이며 주체는 레날 씨인데 중개자는 발르노가 된다. 「돈키호테」와 다른 점은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경쟁관계의 유무이다. 「적과 흑」에서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 경쟁관계가 나타난다면 「돈키호테」에서는 그러한 경쟁관계가 없다. 지라르는 전자의 경우를 내면적 간접화(médiation interne)로 후자를 외면적 간접화(médiation externe)라 칭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욕망의 간접화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의 필요에 따른, 즉 사용가치에 따른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교환가치에 따른 왜곡된 욕망의 형태임을 보여준다. 특히 내면적 간접화는 “주체가 타자를 모방하면서도 모방의 대상

10) 앞의 책, p.46.

을 밝히지 않고 모방 자체를 터부시함으로써 자기기만에 빠지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¹¹⁾

한편 이러한 욕망의 간접화는 한국 문학에서 식민지민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는 유효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조선은 타율적 개화를 통해 일본에 의하여 식민지적 자본주의가 이입되었으며, 일본에 의해 수행된 식민지적 자본주의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이전에 지녔던 조선적 가치를 떨쳐버린 것으로, 낡은 것으로,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토록 주입되고 학습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인에게 내면화되었을 때는 내선일체라는 국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항민화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체념적 서자의식을 지니도록 만들었다. 서자의식이란 자신이 적자가 아닌 깨달음이자 소외된 주체, 즉 타자임을 인식하는 아픔이다. 이러한 서자의식은 1930년대 후반 문학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30년대 후반 일련의 가족사 연대기소설이라 불렀던 이기영의 「봄」, 한설야의 「탐」,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 김남천의 「대하」, 김사량의 「낙조」 등에서 이러한 서자의식은 내재되어 있으며, 이후 한설야와 김남천 등의 일본어 글쓰기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일본 문단에서 활동했던 김사량의 일본어 글쓰기에서도 이러한 체념적 서자의식을 내보이는 소설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천마」인데, 이 작품의 주인공 현룡(玄龍)은 당대 평론가 김문집을 모델로 하고 있다.¹²⁾

—〈전략〉— 도쿄에서 보낸 15년간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로 가련한 들개와도 같은 것이었다. 더욱 나빴던 것은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걸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의 골격이나 면모가 영락없이 조선인으로 생겨 먹었기 때문에 하숙에 들어가려고 해도 우선 얼굴 때문에, 게다가 너털너털한 바지 차림으로 찾아가니, 아예 처음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문득 신의 계시라도 받은 양 교육책으로, 갑자

11) 김치수, 앞의 글, p.27.

12) 백철, 『문학자서전』(후편), 박영사, 1975, pp.21~25.

이정숙, 「김사량과 재일 조선인의 문학적 거리」, 《국제한인문학연구》 창간호, 국제한인문학회, 2004, p.308.

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기 자신은 조선 귀족의 아들이고 게다가 문학적인 천재일 뿐 아니라 조선 문단에서는 일류 작가라고 떠들며 다니기로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더 심하게 받아야만 하는 멸시나 거북한 일도 다소는 완화시키고, 얼마간 생활상으로도 융통을 편하게 해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기적적인 것이, 바로 그 방법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 잇달아 두세 명의 여자로 하여금 자신을 먹여 살리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락〉¹³⁾ / 〈강조 인용자〉

이 작품에서 소설가 현룡은 정말 일본인이기를 희망하며 일본 문단에 진출하고자 욕망한다. 때문에 도쿄 문단의 작가 다나카(田中)가 만주에 가는 길에 경성에 들러 조선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에 그와 안면을 터야 한다는 욕망에 불타올라 어떻게든 그와의 만남을 갖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는 현룡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지의 예술계에서 누구든 이름 있는 사람이라도 오면, 하잘 것 없는 문학계 퇴물들이 자기가 조선 문인을 대표하는 듯한 얼굴로 몰려오기 때문에 보이들은 골머리를 앓”¹⁴⁾았을 만큼 다반사였다. 현룡이 욕망의 주체라면 대상은 일본(인)으로서 중개자는 다나카인 것이다. 이는 외면적 간접화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현룡을 중개자로 이용하는 인물도 있다.

아래 인용문에서 여류 시인 문소옥은 현룡을 더없이 존경하고 있다.

-〈전략〉- 어쨌든 그녀는 시인으로서도 랭보의 시 몇 편이나 흥내를 내 보는 정도인 형편이지만, 그것을 현룡이 2, 3류 잡지에 추켜세워 그녀의 미모와 함께 그 전도를 부르짖었던 것이다. 그녀가 완전한 시인이 된 듯 자처하며 남의 출판 기념회 같은 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게 된 것도 그 이후의 일이다. 그녀가 못 알아볼 정도로 요염한 모습으로 회장에 나타나면 현룡은 언제나 별떡 일어나 여기로, 여기로 오십시오 하고 자기 옆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다. -〈중략〉- 예전에는 자신이 타파해야만 한다고 부르짖고 또 투쟁했던 봉건성의 복수를 받아야만 했다. 당시는 결혼하려고 해도 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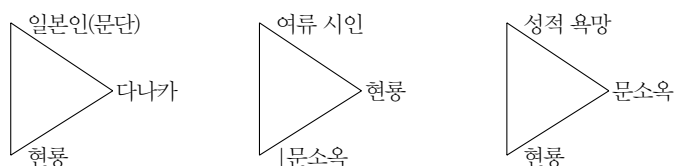
13) 김사량, 『천마』, 『빛 속으로』, 소담출판사, 2001, p.185. / 앞으로는 작품의 제목과 쪽수만을 기록하기로 한다.

14) 위의 작품, p.171.

욕망의 간접화와 형이상학적 욕망의 실체 7

습관 때문에 아내를 갖지 않은 청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청춘의 혈기를 어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남자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난륜(亂倫)의 길에 빠져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야말로 정면으로 낡은 제도에 반항하고 새로운 자유연애의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잇달아 자기 쪽에서 남자를 만들어 갔다. 현룡도 바로 그 상대 가운데 하나였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그건 현룡만은 두 사람이 서로의 광치(狂痴)에 익숙해져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¹⁵⁾ / <강조 인용자>

모던걸인 문소옥의 욕망의 대상은 여류 시인이라는 칭호이며 이를 위해 현룡을 중개자로 이용하고 있다. 현룡은 반대로 문소옥이 지닌 자유연애 사상의 수혜자로서 욕망을 충족한다. 다시 말해서 성적 욕망의 중개자로서 문소옥은 현룡에게는 아주 유효적절한 선택인 셈이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현룡은 일본인도 되지 못하고 조선 문인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인물로 전락하고 만다.

이렇게 비굴한 조선 문학가를 묘사하는 작품 「천마」를 지배하는 정서는 주인공 현룡에 대한 비판이기보다 연민이다. 친일적 행위를 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감정이 연민에 기울어져 있다. 친일자의 행위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풍자가 아니라 연민이라는 것은 고민을 요한다. 연민은 풍자에서 화자의 웃음이 제거된 형태이기에, 문제의 본질은 알지만 스스로는 아무런 해답도 제시할 수 없는 자의 체념이 깃든 슬픔 속에서 배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작품 「천마」의 주인공들은 공공연하게 자신의 욕망을 겉으로 내

15) 위의 작품, p.176.

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보이는 외면적 간접화를 내보인다. 그러한 간접화를 통해 볼 때 “경성을 무대로 하여 조선인 문하게 내부에서 벌어지는 협력”¹⁶⁾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3. ‘삼각형의 욕망’과 주체의 자기반성

「천마」에서의 현룡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인물로 「빛 속으로」의 ‘남(南) 선생’을 들 수 있다. 「천마」에서의 현룡이 공공연하게 진짜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겉으로 나타내는 외면적 간접화를 보여준다면 「빛 속으로」의 남 선생의 경우는 내면화되어 있다. 남 선생은 조선인이다. 그는 현재 S대학협회의 기숙인(레지던트)으로 있으면서, 시민교육부에서 밤에 두 시간 정도 근로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남 선생을 이곳 사람들은 모두 ‘미나미 선생님’이라고 일본식으로 부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야마다 하루오와의 갈등과 화해가 이 소설의 주 내용이다. 남 선생이 하루오와 갈등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루오가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다소 길지만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길게 인용하고자 한다.

“선생님!” / 그 말은 조선어였다. / 나는 잠시 당혹했다. 아이들도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면서도 뭔가 험악한 공기에 주눅이 들어 그와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중략〉- “그렇습니다.” / 이는 선 채 말했다. / “사실 저는 선생님에게 말을 조선어로 걸어야 할지 내지어로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 그의 말 속에는 젊은이다운 분개가 넘치고 있었다. / “물론 나는 조선인입니다.” / 대답하는 내 목소리는 어딘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적어도 그를 대하는 동안은 아마 내 호칭이 신경쓰였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태연한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없었으며, 또한 그것은 내 안에 품었던 비굴한 마음의 증거임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조금은 허둥대면서 이렇게 물

16) 김재용, 「일제말 김사량 문학의 저항과 양극성: 〈천마〉, 〈무궁일가〉, 〈향수〉를 중심으로」, 《실천문학》 통권83호, 2006. 가을호, p.508.

욕망의 간접화와 형이상학적 욕망의 실체 9

어 보았다. / “뭔가 거슬리는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 “있었습니다.” /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 “어째서 선생님 같은 분조차 성을 숨기려고 하는 겁니까?” -〈중략〉- “예를 들어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면 나에 대한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애정이라는 감정보다 나쁜 의미에서의 호기심 같은, 아무튼 일종의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나를 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생으로서 우선 서글픈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무서운 일임에 틀림없죠. 그렇다고 내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불러 주었던 겁니다. 또 나 역시도 그렇게 유난스럽게 내가 조선인이라고 떠들고 다닐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인상을 조금이라도 주었다니 나는 뭐라고 변명할 도리가 없습니다…….”¹⁷⁾ / 〈강조 인용자〉

인용문은 학생인 이군이 남 선생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남 선생의 설명으로 단지 말하지 않았음이 거짓은 아니다. 문제는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면 나에 대한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애정이라는 감정보다 나쁜 의미에서의 호기심 같은, 아무튼 일종의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나를 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데에 있다.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파장, 즉 ‘나쁜 의미에서의 호기심’이나 ‘선입견’ 때문에 굳이 떠벌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남 선생이 지니고 있는 체념적 서자의식의 일환이며, 간접화된 욕망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욕망의 주체인 남 선생은 서자적 입장이 아닌 적자로서의 일본인이고자 하는 욕망을 ‘미나미 선생님’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중개자로 하여 내면화하고 있다.

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하루오는 ‘미나미 선생님’이 조선인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하루오는 남 선생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남 선생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날 밤에 그가 어둑한 할머니네 방에서 걸신들린 듯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¹⁸⁾,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¹⁹⁾ 같은 느낌을 하루오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이후 깨닫게 된 것이지만 하루오의 남 선생에 관한 관심은

17) 『빛 속으로』, pp.24~25.

18) 위의 작품,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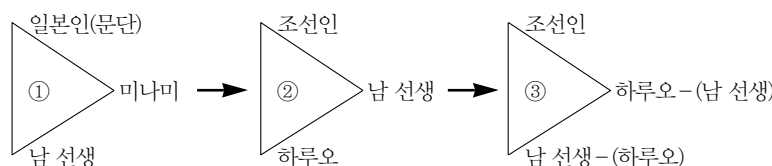
19) 위의 작품, 같은 곳.

1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지속적이었다. 하루오는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소외되어 있었는데, 야영을 가는 날도 비용을 대주겠다는 남 선생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남 선생이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후 남 선생이 혹 하루오가 조선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병원에 한 조선 여인이 일본인 남편으로부터 칼에 찔려 병원으로 실려 오게 되고, 그 사람이 하루오의 어머니임을 알게 된다. 하루오는 “조선진 따위가, 우리 어머니 아냐”²⁰⁾라고 울먹이며 자신은 조선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남 선생은 하루오의 아버지가 ‘반해이(半兵衛)’라는 말을 듣고 두 달 정도 유치장 생활을 함께 했던 반해이를 떠올리게 되면서 비로소 하루오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실체를 깨닫는다.²¹⁾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어머니가 조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루오는 어머니를 표면적으로는 외면한다. 즉, 하루오는 욕망의 주체로서 남 선생을 중개자로 하여 조선인(어머니의 모성)을 욕망하는 것이다.

한편 이군은 돌아갈 곳이 없는 하루오의 어머니에 대해 가련한 마음을 갖지 않는 남 선생을 질책하고, 그 순간 남 선생은 현재 자신이 “미나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벨 소리처럼 찡 하고 오관 속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느²²⁾끼며 자신의 위선을 깨닫게 된다. 단지 말하지 않았다는 진실의 외면이 사실은 위선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인 것이다.

4. 형이상학적 욕망의 실체



20) 위의 작품, p.33.

21) 작품 속에서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추측이 가능한데, 반해이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조선인이었다. 그가 조선 여인과 결혼한 것도 하루오가 지닌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2) 『빛 속으로』, p.42.

하루오의 슬픔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확인한 남 선생은 ‘아마다 정순(貞順)’이라는 하루오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성이 ‘남가’임을 분명히 한다. 하루오도 평소 어머니가 상처에 바르던 썬담배를 들고 어머니의 병문안을 온다. ①이 남 선생에게서 볼 수 있는 욕망의 간접화라면 ②는 하루오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간접화이다. 이들의 삼각형의 욕망은 ③에서처럼 남 선생이 하루오를 중개자로 하여 조선인임을 확인하고 아마다 하루오는 남 선생을 중개자로 하여 조선인임을 인식하는 과정은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내면적 간접화를 보이고 있다. 누가 먼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짓을 내밀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내면적 간접화는 자신이 조선인임을 숨기려고 했던 그리고 자신에게 조선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했던 자기 기만이 폭로됨으로써 비로소 화해의 실마리가 보이게 된다.

결국 그러한 폭로는 남 선생과 하루오가 함께하는 우에노에로의 외출을 통해 화해로써 마무리된다.

“동물원에 간다는 게 여기까지 와 버렸구나.”

“하지만 난 보트를 타고 싶는데요.”

그는 수줍게 말했다.

“그래? 그럼 내려가자.”

거기서부터는 긴 계단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와 하루오는 그걸 하나씩 밟으며 내려갔다. 그는 한 계단 아래를 걸으며 마치 노인이라도 데리고 가는 듯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아끌었다. 그러나 중간까지 내려오더니 갑자기 멈춰 서서, 내 몸에 바짝 다가와 나를 올려다보면서 응석부리듯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전 선생님 이름 알고 있어요.”

“그래?”

나는 멧쩍음을 감추려고 웃어 보였다.

“말해 보렴.”

“남 선생님이죠?”²³⁾ / <강조 인용자>

1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남 선생과 하루오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고, 아마다 하루오는 가슴 속에 서만 품고 있던 말을 발화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발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비로소 형이상학적 욕망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주체 자신의 내밀한 본질을 숨기고 사는 일의 무의미함이다. 김응교는 「빛 속으로」의 이러한 둘의 화해를 풍속의 개념으로 풀어낸다.

〈빛 속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의 풍속을 배경으로 짜여져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풍속은, 창씨개명시대에 일본어 이름이 갖고 있는 '이름의 일상성과 그 내면의 식'이고, 둘째 풍속은 오시아게 지역 등 조선인 노동자의 삶과 수사키 유곽지대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일상성'이며, 셋째 풍속은 마쓰자카야 백화점에서 카레라이스를 먹고 우에노 공원을 찾아가는 '도시유람의 일탈을 통한 일상성'이다. 이렇게 이 작품은 이름의 일상성과 재일조선인의 삶, 그리고 도시유람의 일탈을 통해, 조금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삼각 꼭지점을 거쳐 갈등에서 화해로 나아가는 소설이다.²⁴⁾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든지 간에 주체는 체념적 서자의식으로 인해 주체의 본질을 가렸던 가면을 벗어던지자 비로소 본연의 나와 마주하게 된다. 이는 탈출 욕망이면서 자유의지이다. 지라르의 표현대로라면 이러한 자기 기만의 죽음을 목도하게 되는 절망과 허무에의 직시는 역설적으로 “구원의 시선”²⁵⁾, 즉 “진짜 전향”²⁶⁾이다. 따라서 “식민지 상황 하에서 타자화된 피억압 민족의 개별 주체들이 자신에 대한 억압과 은폐를 벗어나 동족에 대한 인간적 관심과 유대를 통해 그들의 민족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²⁷⁾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합의점에 이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라르의 '삼각형의 욕망' 이론은 식민지민의 왜곡된 욕망의 구조를 파헤칠 수 있는 유효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다.

23) 위의 작품, pp.64~65.

24) 김응교, 「김사량 〈빛 속으로〉의 이름·지기미·도시유람」, 《민족문화사연구》 20호, 민족문화사학회, 2002, p.404.

25) René Girard, 앞의 책, p.382.

26) 위의 책, 같은 곳.

27) 이영구·박민호, 「식민·반식민시기 '타자적 주체'로서의 피억압 민족 형상: 김사량 〈빛 속으로〉, 郁達夫 〈沉沦〉 비교 연구」, 《中國語文論叢刊》 第24輯, 중국어문논역학회, 2009, p.344.

욕망의 간접화와 형이상학적 욕망의 실체 13

그것이 식민지 자본주의라면 자본주의의 후발 주자로서 갖게 되는 서자의식이
고, 그것이 국체로서 하나를 강조하는 내선일체사상이라면 동화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타자로서의 서자의식인데, 삼각형의 욕망 이론은 그러한 시대적
모순을 폭로하는 좋은 기제일 수 있을 것이다.

1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참고문헌

김사랑, 『김사랑 작품집』, 문예출판사(평양), 1987.

김사랑, 『빛 속으로』, 소담출판사, 2001.

김응교, 「김사랑 〈빛 속으로〉의 이름·지기미·도시유람」, 《민족문학사연구》 2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2.

김재용, 「일제말 김사랑 문학의 저항과 양극성: 〈천마〉, 〈무궁일가〉, 〈향수〉를 중심으로」, 《실천문학》 통권83호, 2006. 가을호.

백 철, 『문학자서전』 후편, 박영사, 1975.

이영구·박민호, 「식민·반식민시기 '타자적 주체'로서의 피억압 민족 형상: 김사랑 〈빛 속으로〉, 郁達夫 〈沉沦〉 비교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4輯, 중국어문논역학회, 2009.

이정숙, 「김사랑과 재일 조선인의 문학적 거리」, 《국제한인문학연구》 창간호, 국제한인문학회, 2004.

임형모, 「김사랑의 초기 한글 소설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3호, 국제한인문학회, 2006.

장형준, 「작가 김사랑과 그의 문학」(해설, 김사랑, 『김사랑 작품집』, 문예출판사(평양), 1987.

川村 漆, 「김사랑의 삶과 죽음, 그리고 문학」(해설, 김사랑, 『빛 속으로』, 소담출판사, 2001.

Girard. René, 김치수·송의경 옮김,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7 (2001).

Abstract

The indirection of desire and the substance of metaphysical desire

- Focusing on Gim Sa-Ryang's *Cheon Ma* and *In the Light*

Im, Hyeong-mo

The theory about René Girard's triangle desire is the effective frame that can solve the structure of the distorted desire of colonists. As he can't help having the bastard-consciousness originally as colonists, the subject who wants to be Imperial Citizen Forming but not to rouses others pain. The expression of the public desire and the frustration 'Hyeon-Ryong' who wanted to go into the Japanese literary had is well shown through Gim Sa-Ryang's *Cheon Ma*. Also hiding himself as a Korean person in *In the Light*, 'Mr. Nam', 'Haruo' denied the fact that the Korean blood itself flew in his body. If we analyze the theory through Girard's triangle desire, it is proves that just telling the truth is hypocrisy. The inside indirection is shown by *In the Light* while the outside indirection is shown by *Cheon Ma*. Consequently, the theory of Girard's triangle desire has the effective method that proves that colonists as foreigners have the bastard-consciousness.

주제어 : 황민화(Imperial Citizen Forming), 서자의식(the bastard-consciousness), 삼각형의 욕망(triangle desire), 외면적 간접화(outside indirection), 내면적 간접화(inside indirection), 김사량(Gim Sa-Ryang), 천마(Cheon Ma), 빛 속으로(In the Light)